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랄플레이스 3층 T. 02)735-1050 F. 02)6363-8493

www.stop.or.kr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여성인권-결과보고 2019-3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등록번호
여성인권-결과보고 2019-3

www.stop.or.kr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등록번호
여성인권-결과보고 2019-3

www.stop.or.kr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Contents

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센터 개요 6
2. 사업 내용 7

Ⅱ 피해자 지원 실적

1. 전체 현황 11
2. 상담지원 현황 13
   - 가. 최초 상담 경로 13
   - 나. 피해자 현황 14
   - 다. 피해 유형 15
   - 라. 가해자 현황 17
   - 마. 피해 인지 경로 18
   - 바. 피해 인지 후 최초 대응 20
3. 삭제지원 현황 21
   - 가. 피해자 현황 21
   - 나.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22
   - 다. 피해촬영물 특성 24
   - 라. 개인정보 유출 29

Ⅲ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1. 종합적 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 32
   〈피해영상 삭제부터 상담, 수사, 법률, 의료지원까지〉
2. 지원센터-경찰청 핫라인 34
   〈공조로 2차 피해 예방〉
3. 적극적인 대처로 신속한 유포 확산 방지 36
4. 일상 사진을 도용한 디지털 성범죄 37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I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센터 개요

2. 사업 내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센터 개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17.9.26.)에 따라

2018년 4월 30일 개소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연계, 의료지원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24시간 상시 협력, 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연계 및 센터-경찰청 핫라인 개설 등 관련부처 간 협력을 강화함.

2018

2018년 4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총 3,251명의 피해자에 대한 129,973건의 피해 지원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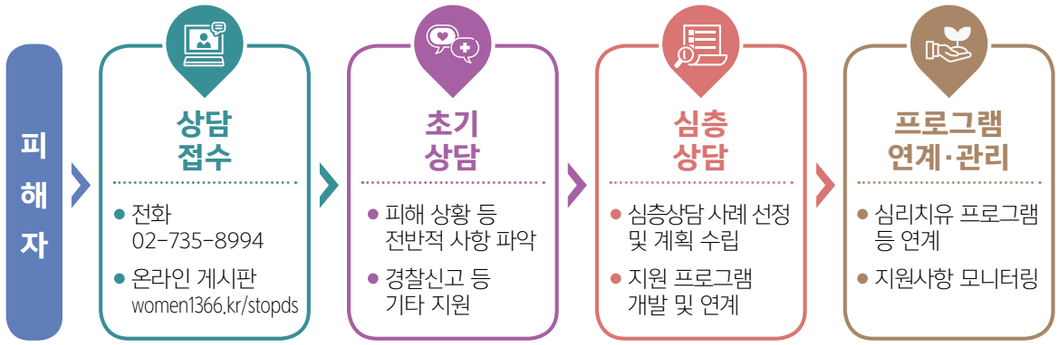
2019

2019년에는 몸캠피싱, 사이버괴롭힘 등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 또한,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여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삭제지원 노하우 축적을 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삭제 경로 발굴 등 지원업무를 내실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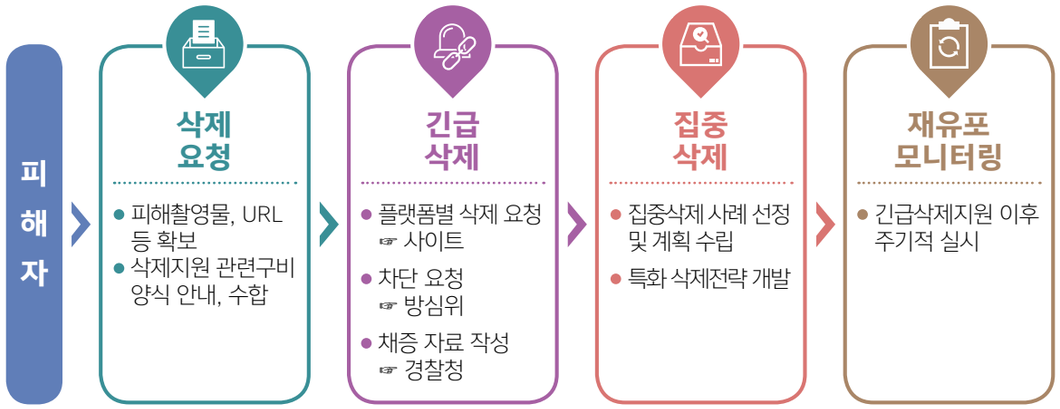
향후 2019년 센터에서 개발한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피해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2. 사업 내용

상담지원 업무 흐름도



삭제지원 업무 흐름도



Ⅱ 피해자 지원 실적

1. 전체 현황

2. 상담지원 현황
가. 최초 상담 경로
나. 피해자 현황
다. 피해 유형
라. 가해자 현황
마. 피해 인지 경로
바. 피해 인지 후 최초 대응

3. 삭제지원 현황
가. 피해자 현황
나.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다. 피해촬영물 특성
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지원 실적 세부 내용

일러두기

▶ **기준일**

- 2018년: 18.4.30.~18.12.31. [8개월]
- 2019년: 19.1.1.~19.11.30. [11개월]

▶ **이 보고서의 세부 통계 작성 기준은 표 아래 각주로 제시됨.**

- 피해자 수
  -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신고를 한 피해자(인원, 명) 수
  - 2018년에 피해지원이 개시된 피해자 중 2019년에도 지원이 지속된 경우에는 2019년 피해자 인원에 포함.
- 지원 건수
  - 지원 건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지원(활동, 건) 기준
  - 동일 피해자에 대해 여러 가지의 지원이 이뤄진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건수는 피해자 인원보다 많게 나타남.
- 통계 분석 내용은 2019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2018년 통계는 전년 대비 양상이크게 변화된 내용을 위주로 분석함.

1. 전체 현황

(단위: 건)

기간	피해자 (명)	지원건수(건)				
		합계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지원 연계
2018	1,315 (165명)	33,921 (4,240)	4,787 (598)	28,879 (3,610)	203 (25)	52 (7)
2019	1,936 (176명)	96,052 (8,732)	5,178 (471)	90,338 (8,213)	480 (44)	56 (5)

* 괄호 안은 월평균 값. 2019년 피해자 1,936명 중 520명은 2018년 인입되어 지속지원을 받은 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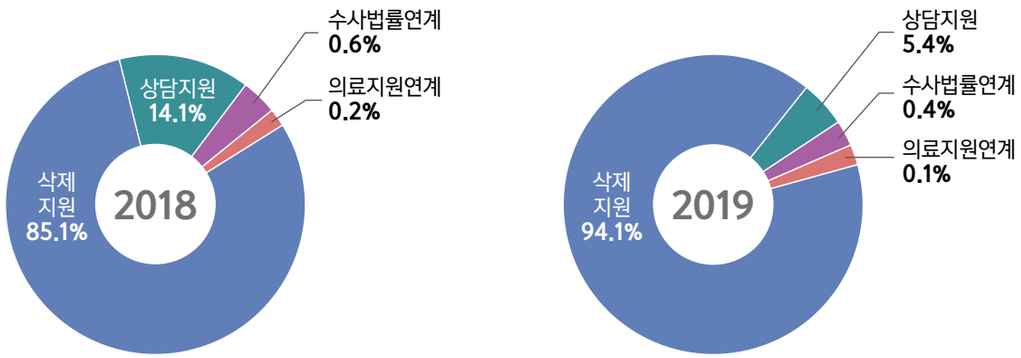
■ 2019년 지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삭제지원으로 90,338건을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지원 5,178건, 수사 · 법률 지원연계 480건 순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지원한 피해자는 총 1,936명으로, 2018년 1,315명보다 621명 증가하였다. 월평균 지원 피해자는 2018년 165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76명으로 증가하였다.

■ 지원 건수는 2019년 총 96,052건으로 2018년 33,921건에 비해 6만 건 이상 증가하였으며, 또한, 월평균 지원 건수는 2018년 4,240건에서 2019년 8,732건으로 증가하였다.

■ 2019년 피해자 지원은 월평균 지원 피해자와 활동 건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단위: 건)



- 삭제지원은 2018년 월평균 3,610건이었던 데 반해 2019년 월평균 8,213건으로 4,500건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지원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데에는 삭제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8년 9명에서 16명으로 확충한 삭제지원 인력과 축적된 피해지원 노하우 등으로 인해 삭제지원 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상담지원은 2018년 월평균 598건에서 2019년 471건으로 감소한 데 반해, 수사·법률 지원연계는 2018년 월평균 25건에서 2019년 44건으로 증가하였다.
- 이는 지원센터-경찰청 직통회선(핫라인) 개설을 통한 수사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전문 변호사 인력 배치로 수사·법률 지원연계 건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상담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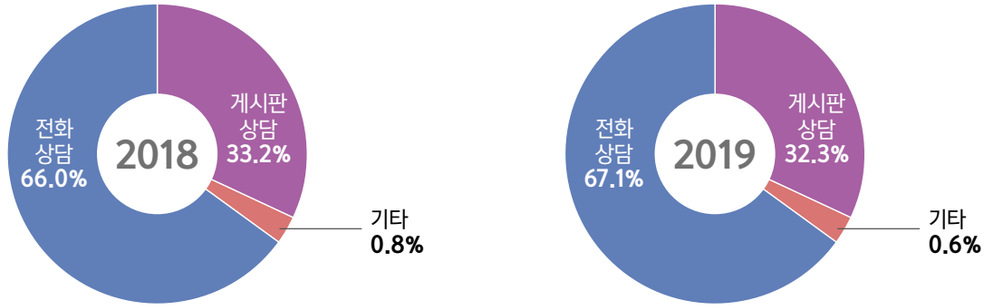
가. 최초 상담 경로

(단위: 명)

기간	합계	전화 상담	게시판 상담	기타*
2018	1,315 (100%)	868 (66.0%)	437 (33.2%)	10 (0.8%)
2019	1,936 (100%)	1,299 (67.1%)	625 (32.3%)	12 (0.6%)

* 기타는 방문, 문자, 메일 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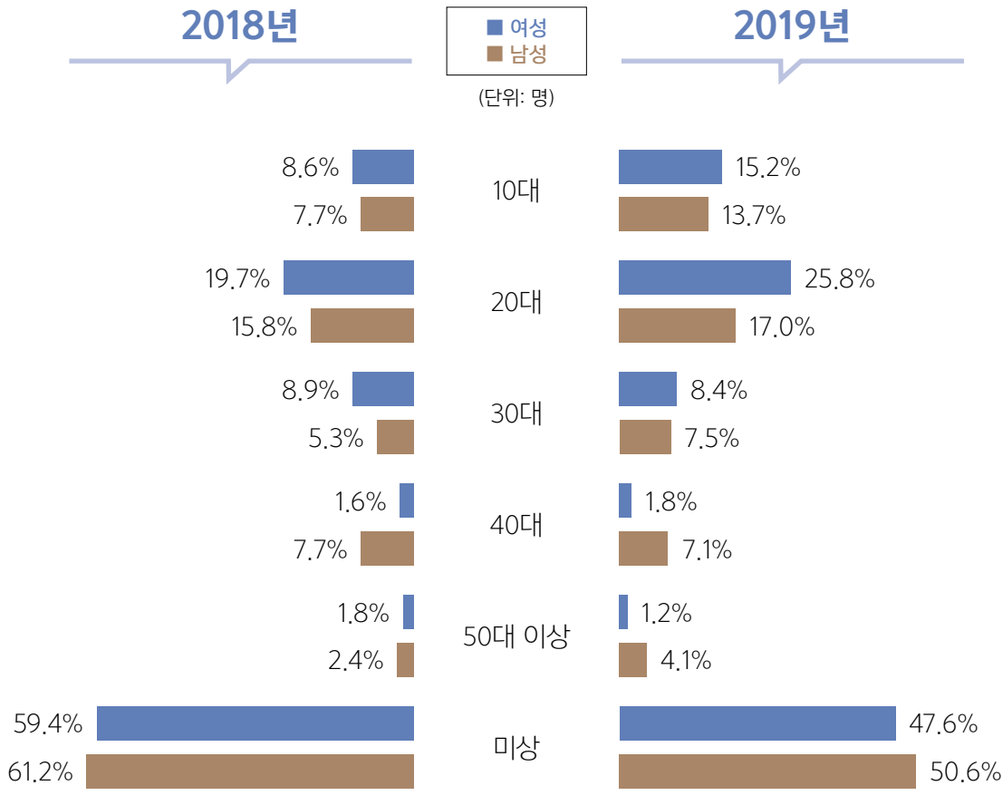


- 2019년 1,936명의 피해자 중 전화 상담을 통해 최초 인입되는 경우가 1,299명(67.1%)으로 대부분의 최초 상담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통해 625명(32.3%)의 내담자가 인입된 경우가 많았다.
- 최초 상담 경로는 전년 대비 큰 차이 없으나 전화 상담을 통한 인입이 1,299명(67.1%)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피해촬영물이 존재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직접 대면하는 내방상담보다는 전화 또는 게시판 상담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나. 피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미상
2018	여성	1,106 (100%)	95 (8.6%)	218 (19.7%)	98 (8.9%)	18 (1.6%)	20 (1.8%)	657 (59.4%)
	남성	209 (100%)	16 (7.7%)	33 (15.8%)	11 (5.3%)	16 (7.7%)	5 (2.4%)	128 (61.2%)
2019	여성	1,695 (100%)	258 (15.2%)	438 (25.8%)	142 (8.4%)	30 (1.8%)	20 (1.2%)	807 (47.6%)
	남성	241 (100%)	33 (13.7%)	41 (17.0%)	18 (7.5%)	17 (7.1%)	10 (4.1%)	122 (50.6%)



- 2019년 피해자는 여성 1,695명, 남성 241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87.6%로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며 남성 피해자는 월평균 2018년 26명, 2019년 22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 연령별로는 피해자 자신이 연령을 밝히지 않은 경우(929명)를 제외하고, 20대가 479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15.0%)와 20대(24.8%) 피해자의 비율이 39.8%로 2018년도에 10대(8.4%)와 20대(19.1%) 비해 12.3%p 증가하였다.

다. 피해 유형

(단위: 건)

기간	합계	유포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유포 불안	사진 합성	사이버 괴롭힘	몸캠 및 해킹	기타
2018	2,289 (100%)	758 (33.1%)	656 (28.7%)	208 (9.1%)	216 (9.4%)	69 (3.0%)	108 (4.7%)	31 (1.4%)	243 (10.6%)
2019	3,368 (100%)	1,001 (29.7%)	875 (26.0%)	289 (8.6%)	414 (12.3%)	134 (4.0%)	218 (6.5%)	47 (1.3%)	390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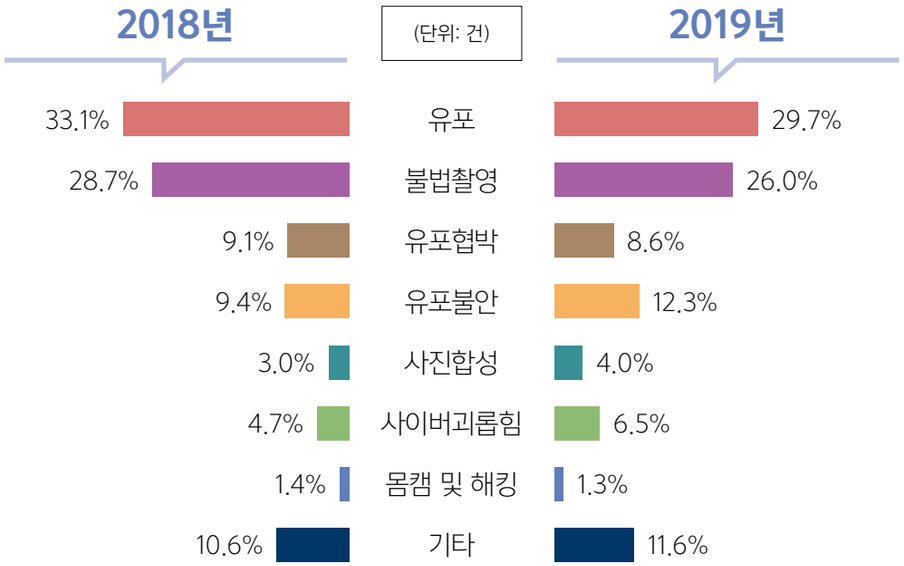
* 피해자별 호소 내용 중복 집계
* 피해자 A가 유포 피해를 여러 번 입어도 1건으로 보며, 유포와 유포협박으로 각각 피해를 입을 경우는 각 1건으로 집계함

<피해 유형 분류 기준>

- 유포: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 유포협박: 실제 유포 여부를 불문하고 협박이 이뤄진 경우
- 불법촬영: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 유포불안: 유포 불안을 호소한 경우
- 사진합성: 사진이 기타 성적 촬영물과 합성된 경우
-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행해진 경우
- 몸캠 및 해킹: 성적 촬영물을 요구한 후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해킹이 동반되기도 함
- 기타: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

- 2019년 피해 유형 중 유포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1,001건(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 875건(26.0%), 유포불안 414건(12.3%), 유포협박 289건(8.6%) 순으로 나타났다.
- 2018년, 2019년 접수된 피해 유형의 비율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유포불안의 증가는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심리적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 피해 유형은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집계 한 것으로, 1,936명의 피해자 중 1,162명이 중복피해를 호소하였다. 이는 중첩된 피해*를 입은 피해자 1명당 평균 두 건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첩된 피해: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유포협박을 당하거나 유포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



- 사이버괴롭힘은 218건(6.5%), 사진합성은 134건(4.0%)으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라. 가해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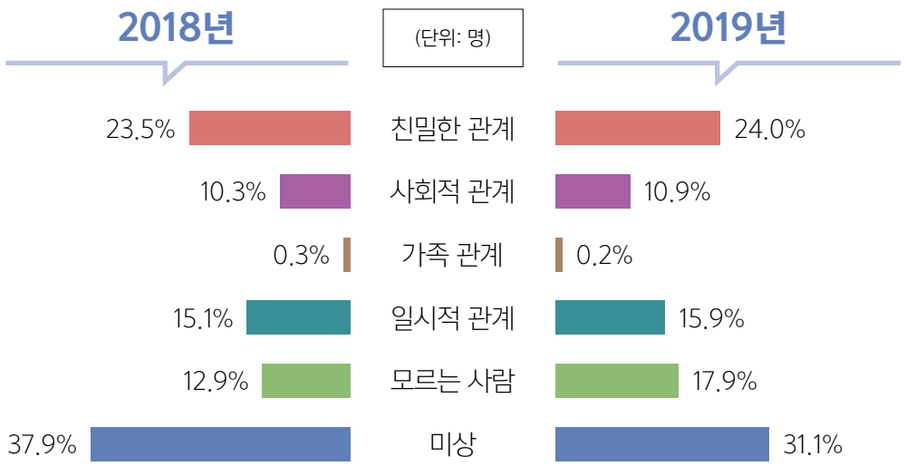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합계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미상
2018	1,315 (100%)	309 (23.5%)	136 (10.3%)	5 (0.3%)	198 (15.1%)	169 (12.9%)	498 (37.9%)
2019	1,936 (100%)	464 (24.0%)	211 (10.9%)	5 (0.2%)	307 (15.9%)	346 (17.9%)	603 (31.1%)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류 기준>

- 위 통계는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함.
- 친밀한 관계: 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 사회적 관계: 학교, 직장, 기관 등 업무 및 사회적 활동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
- 일시적 관계: 채팅 상대 혹은 일회성 만남.
- 가족 관계: 부부를 제외한 친인척, 형제자매.
- 모르는 사람: 가해자가 확인되었으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
- 미상: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관계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 2019년 가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상이 603명(31.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부부 및 연인으로서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464명(24.0%), 채팅 상대 등 일시적 관계였던 경우가 307명(15.9%), 모르는 사람 346명(17.9%) 순으로 나타났다.



-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미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미상을 제외하면, 기존의 여성폭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폭력 역시 모르는 사람 346명(17.9%)보다는 친밀한 관계가 464명(24.0%)으로 아는 사이에 의한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의 2018년, 2019년 접수된 사례의 가해자 현황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마. 피해 인지 경로

1) 전체 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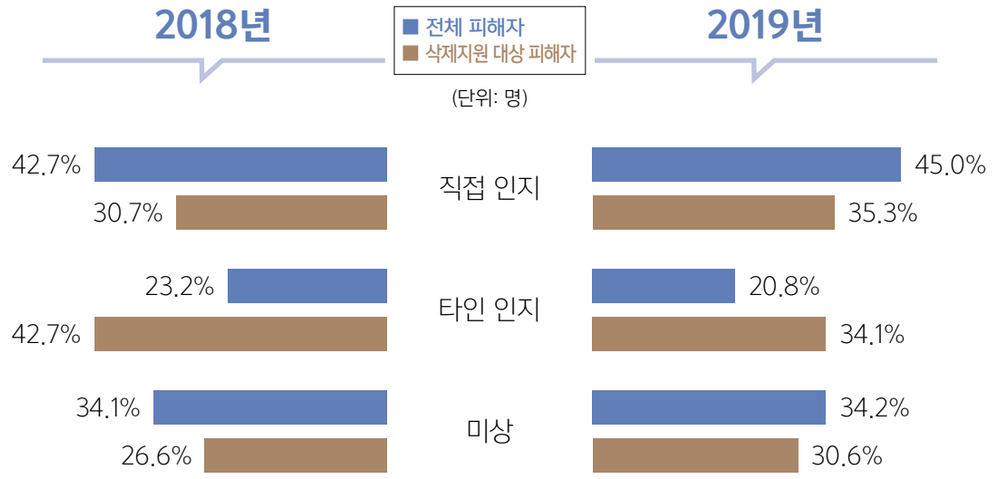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합계	직접 인지	타인 인지	미상
2018	1,315 (100%)	561 (42.7%)	305 (23.2%)	449 (34.1%)
2019	1,936 (100%)	871 (45.0%)	403 (20.8%)	662 (34.2%)

2)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

(단위: 명)

구분	합계	직접 인지	타인 인지	미상
2018	241 (100%)	74 (30.7%)	103 (42.7%)	64 (26.6%)
2019	487 (100%)	172 (35.3%)	166 (34.1%)	149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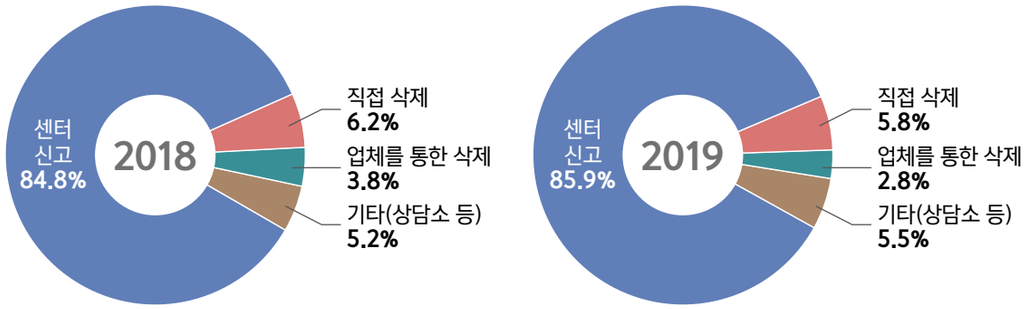
- 센터로 접수된 2019년 피해자 중 직접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가 871명(45.0%)으로 타인에 의해 알게 된 경우 403명(20.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즉 본인이 피해 사실을 먼저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피해 유형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형(유포 협박 등)의 피해가 포함되어 직접 인지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삭제지원 대상 피해자의 타인 인지 비율은 34.1%로 전체 피해자의 타인 인지 비율인 2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영상물 유포 피해를 직접 알기 어려운 디지털성범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 인지 후 최초 대응

(단위: 명)

구분	합계	센터 신고	직접 삭제	업체를 통한 삭제	기타 (상담소 등)
2018	1,315 (100%)	1,115 (84.8%)	81 (6.2%)	51 (3.8%)	68 (5.2%)
2019	1,936 (100%)	1,663 (85.9%)	113 (5.8%)	54 (2.8%)	106 (5.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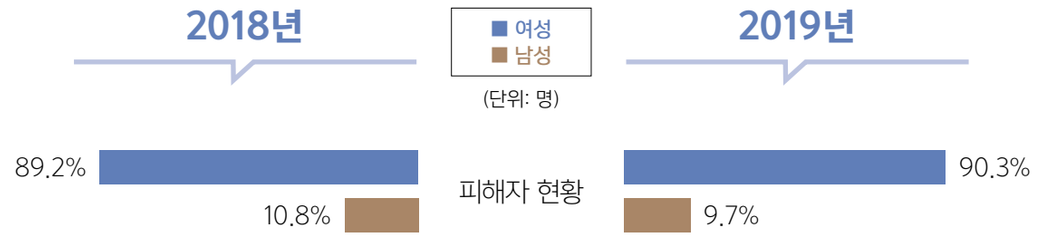
- 피해 인지 후 최초 대응으로서 센터에 바로 신고한 피해자는 2019년 1,663명으로 85.9%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센터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 피해 영상을 직접 삭제한 피해자는 113명(5.8%)에 불과했고, 여성폭력 관련 다른 상담 기관에 문의하는 등 기타 방법을 취한 경우도 106명(5.5%)에 그쳤다.
- 2018, 2019년도 모두 전체 피해자의 75%가 가장 먼저 센터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 센터 신고와 함께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2018년 274명, 2019년 48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접 삭제, 업체를 통한 삭제, 기타(상담소 등) 등의 최초 대응과 함께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2018년 70명, 2019년 83명으로 확인되었다.

3. 삭제지원 현황

가. 피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여성	남성
2018	241 (100%)	215 (89.2%)	26 (10.8%)
2019	487 (100%)	440 (90.3%)	47 (9.7%)



- 피해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유포 정보(URL, 키워드, 원본 등)가 불확실한 경우 피해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삭제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유포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 수와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 2019년 삭제지원이 이루어진 피해자는 2018년부터 지속된 219명을 포함하여 총 487명이다. 이 중 여성이 440명(90.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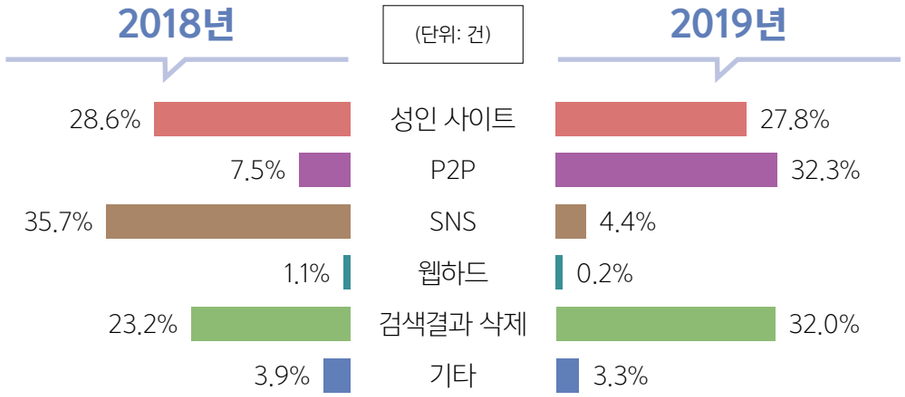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합계	성인 사이트	P2P	SNS	웹하드	검색결과 삭제	기타 (커뮤니티 등)
2018	28,879 (100%)	8,239 (28.6%)	2,158 (7.5%)	10,312 (35.7%)	317 (1.1%)	6,705 (23.2%)	1,148 (3.9%)
2019	90,338 (100%)	25,105 (27.8%)	29,090 (32.3%)	4,042 (4.4%)	190 (0.2%)	28,924 (32.0%)	2,987 (3.3%)

<플랫폼 분류 기준>

- 성인사이트: 불법콘텐츠 유통 및 판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
- P2P: 토렌트 등 P2P(peer-to-peer network) 공유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도록 검색 기능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 SNS: 개인의 공간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 타인과의 교류 등을 확장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 웹하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로 등록된 파일 공유 사이트.
- 검색결과 삭제: 원 페이지나 콘텐츠는 삭제되었으나 대형 검색엔진이 수집한 웹페이지 결과 (키워드, 섬네일 등)가 남아 있는 경우 삭제를 요청하는 것.
- 기타: 커뮤니티, 아카이브, 스트리밍, 클라우드 등 기타 플랫폼

■ 2019년 삭제지원한 플랫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P2P로 29,090건(32.3%). 다음으로 검색결과 삭제 28,924건(32.0%), 성인 사이트 25,105건(27.8%) 순으로 나타났다.



■ 2018년과 비교해보면 P2P 삭제지원 건수는 2,158건(7.5%)에서 29,090건(32.3%)으로 2019년 건수가 13배 이상 증가하였고, 비율도 전년 대비 24.8%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센터의 인력확충 및 새로운 삭제요청 창구 발견 등 P2P 플랫폼에 대한 지원 노하우와 전문성 축적으로 삭제지원 건수가 대폭 상승하였다.

■ 이에 반해 SNS 삭제지원 건은 10,312건(35.7%)에서 4,042건(4.4%)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피해촬영물이 주로 유포되던 텀블러(tumblr)가 자정 노력을 한 결과, 텀블러 상의 유포 피해가 줄어들어 삭제지원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검색결과 삭제는 6,705건(23.2%)에서 28,924건(32.0%)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 검색결과 삭제지원 뿐만 아니라 재유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2018년에 이미 삭제한 피해촬영물의 키워드, 섬네일 등 검색엔진에 남아 있는 게시물까지 삭제지원함에 따라 전체 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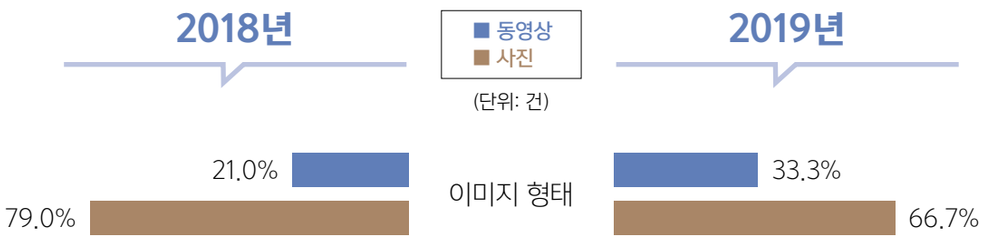
다. 피해촬영물 특성

1) 이미지 형태

(단위: 건)

구분	합계	동영상	사진
2018	3,849 (100%)	808 (21.0%)	3,041 (79.0%)
2019	3,941 (100%)	1,344 (33.3%)	2,627 (66.7%)

- 피해자 신고 시 접수된 피해촬영물과 센터에서 삭제지원하며 발견한 새로운 원본 및 편집된 피해촬영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편집된 피해촬영물이란 촬영물에 성인사이트 광고 이미지나 워터마크가 붙거나 또 다른 촬영물과 하나로 합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의미한다.
- 센터에서 확보한 피해촬영물은 사진 형태가 2,627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동영상은 1,344건(33.3%)으로 집계되었다.



- 삭제지원 피해자 수는 2018년 241명, 2019년 268명(인입 연도 기준), 확보된 피해촬영물 수는 각각 3,849건, 3,941건이다. 즉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00건 이상의 피해촬영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한 명에 100건이 넘는 경우는 주로 사진 형태의 피해촬영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촬영물의 형태가 동영상인 경우는 2018년 808건(21.0%)이었으나 2019년 1,344건(33.3%)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동영상 유포가 큰 신규 사이트 발굴을 통해 새로운 원본 및 편집된 피해촬영물 확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이에 반해 사진 형태의 피해촬영물은 3,041건(79.0%)에서 2,627건(66.7%)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비중은 2018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촬영물 특성은 사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해석보다는 향후 변화추이를 축적하여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촬영 장소

(단위: 건)

구분	합계	사적 공간	공공장소	유흥업소	업무수행 공간	미상
2018	3,849	2,193 (57.0%)	833 (21.6%)	54 (1.4%)	178 (4.6%)	591 (15.4%)
2019	3,941	2,499 (63.4%)	1,044 (26.5%)	38 (1.0%)	190 (4.8%)	170 (4.3%)

<촬영장소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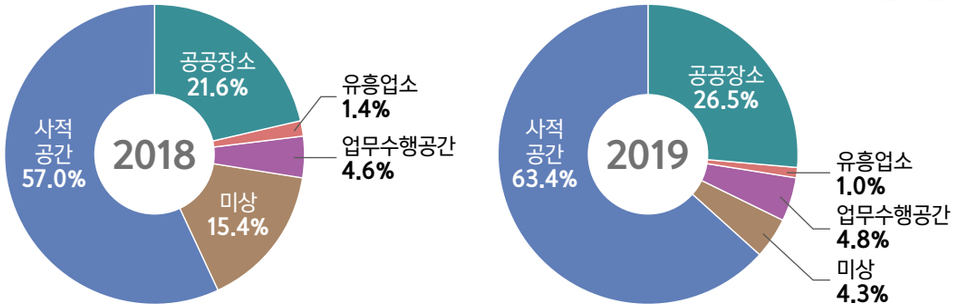
- 사적 공간: 유흥·성매매업소 및 업무수행공간을 제외하고 출입이 제한된 장소(집, 숙소, 모텔 등)
- 공공장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지하철, 공중화장실, 학교 등)
- 유흥업소: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지만, 별도로 공간이 분리된 사업장(노래방, 멀티방, 룸카페 등)

- 업무수행공간: 업무 수행을 위한 장소(직장, 촬영 스튜디오 등)
- 미상: 피해당사자가 촬영장소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촬영장소는 사적 공간이 2,499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가 1,044건(26.5%)으로 그 뒤를 이었다.

■ 피해촬영물은 공공장소보다 사적 공간에서 촬영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단위: 건)



■ 사적 공간에서 촬영된 경우는 2018년 2,193건(57.0%)에서 2019년 2,499건(63.4%)으로 증가하였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역시 2018년 833건(21.6%)에서 2019년 1,044건(26.5%)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타 여성폭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폭력 역시 친밀한 관계, 사적 공간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8년 대비 촬영장소가 미상인 경우는 591건(15.4%)에서 170건(4.3%)으로 감소하였다.

3) 촬영 내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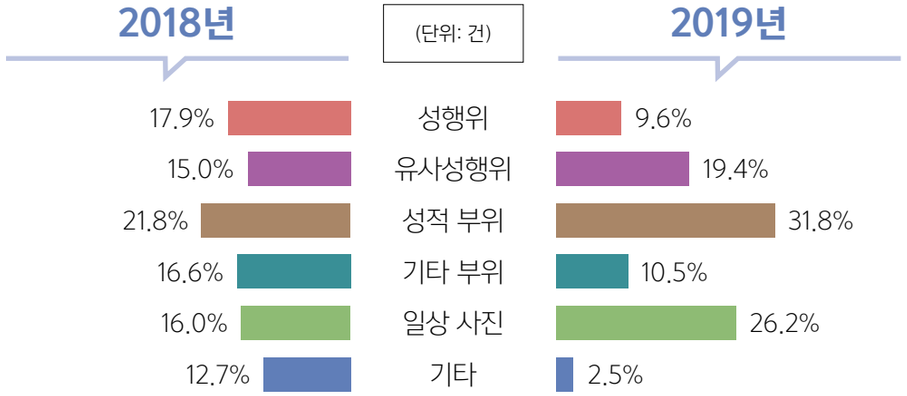
구분	합계	성행위	유사 성행위	성적 부위	기타 부위	일상 사진 (합성·도용)	기타
2018	3,849 (100%)	690 (17.9%)	576 (15.0%)	841 (21.8%)	639 (16.6%)	615 (16.0%)	488 (12.7%)
2019	3,941 (100%)	378 (9.6%)	764 (19.4%)	1,254 (31.8%)	413 (10.5%)	1,033 (26.2%)	99 (2.5%)

<촬영내용 분류 기준>

- 성행위: 성기간 삽입.
- 유사성행위: 구강성교, 기구 삽입, 자위행위 등.
- 성적 부위: 유두, 성기, 음모, 항문 등.
- 기타 부위: 다리, 뒷모습, 발 등 그 자체로는 성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부위.
- 일상 사진(합성·도용): 셀카 등 촬영 당시에는 성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촬영물.
- 기타: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속옷 사진, 성인용품 등 기타 촬영물.

■ 촬영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 부위가 1,254건(31.8%)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 도용·합성 등 일상 사진이 피해촬영물이 된 경우가 다음으로 많아 1,033건(26.2%)에 달했다. 유사성행위가 764건(19.4%)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성행위 촬영물은 378건(9.6%)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과 비교하여 성적 부위는 841건(21.8%)에서 1,254건(31.8%)으로 증가하였고, 기타 부위는 639건(16.6%)에서 413건(10.5%)로 감소하였다.
- 이에 반해 유사성행위는 2018년 576건(15.0%)이었으나 2019년 764건(19.4%)으로 증가하였다. 일상 사진(합성·도용)도 615건(16.0%)에서 1,033건(26.2%)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상 사진(합성·도용) 피해촬영물 증가는 2018년 대비 사진합성, 사이버괴롭힘 등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피해 접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성적 부위 피해촬영물 증가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피해 공론화 이후 관련 피해 접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라. 개인정보 유출

(단위: 건)

구분	삭제 지원	개인정보 유출					
		합계	성명	주소	나이	소속	전화번호
2018	28,879 (100%)	6,700 (23.2%)	4,793 (71.5%)	622 (9.3%)	546 (8.1%)	533 (8.0%)	206 (3.1%)
2019	90,338 (100%)	21,514 (23.8%)	15,816 (73.6%)	763 (3.5%)	2,116 (9.8%)	2,773 (12.9%)	46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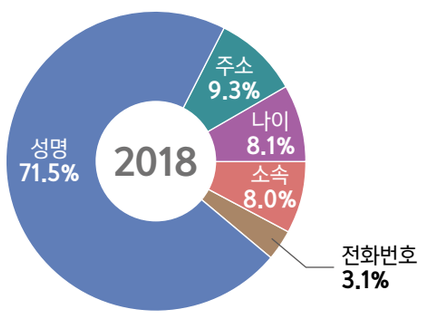
* 합계 내 괄호는 전체 삭제지원 건수 대비 비율임.
* 성명, 주소, 나이, 소속, 전화번호의 비율은 합계를 100%로 상정했을 때의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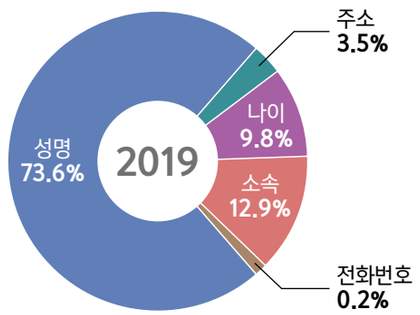
<개인정보 유출 분류 기준>

- 성명: 이름, 별칭 등 피해자를 지칭하는 경우.
- 주소: 피해자의 거주지를 특정하는 경우.
- 나이: 연령, 생년월일, 학번 등 피해자의 나이를 특정하는 경우.
- 소속: 학교, 회사 등 피해자가 소속된 단체나 기관을 특정하는 경우.
-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피해자의 연락처를 특정하는 경우.

-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019년 전체 삭제지원 90,338건 중 21,514건(23.8%)을 차지하였다.
-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이 15,816건(73.6%)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 2,773건(12.9%), 나이 2,116건(9.8%), 주소 763건(3.5%), 전화번호 46건(0.2%)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건)





- 전체 유출 현황 중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명인 경우가 4,793건(71.5%)에서 15,816(73.6%), 나이가 546건(8.1%)에서 2,116건(9.8%), 소속이 533건(8.0%)에서 2,773건(12.9%)으로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개인정보 유출 항목 중 성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이름을 피해촬영물 핵심어(키워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Ⅲ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1. 종합적 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
2. 지원센터-경찰청 핫라인
3. 적극적인 대처로 신속한 유포 확산 방지
4. 일상 사진을 도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1 종합적 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

〈피해영상 삭제부터 상담, 수사, 법률, 의료지원까지〉

피해자 A씨는 채팅앱을 통해 한국계 외국 국적자인 가해자를 만났고,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가해자는 A씨가 잠든 사이에 A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였고, 가해자는 이 사진을 성인 사이트 등에 유포하였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사설 업체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없었고, 업체에서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다. A씨는 뉴스를 통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센터로 연락을 하였다.

센터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A씨와 내방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전에 A씨는 외국 국적자는 수사가 어렵고 잡히더라도 낮은 형량으로 처벌될 거라는 이야기를 지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신고를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수사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ㅇㅇ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외국 국적자 처벌 가능성을 문의하였다.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고소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와 가해자의 연인은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며 A씨를 괴롭혔다. 심적으로 취약해져 있던 A씨는 사설 업체에 지급한 삭제 비용만큼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다.

센터는 우선 신속하게 삭제지원에 착수하였다. 사설 업체를 통해 삭제했음에도 검색엔진의 연관검색어에는 여전히 A씨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있었다. 센터는 검색 가능한 키워드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검색엔진에 연관검색어 노출 금지를 요청하여, A씨의 신상정보가 더 이상 연관검색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A씨가 합의를 철회하고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A씨는 합의를 취소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센터는 재판부에 유포 피해 사실을 해명할 수 있는 채증 자료를 제공하였고, A씨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상담소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센터에서 제공한 채증 자료와 A씨가 받은 의료지원 기록은 피해의 심각성을 해명하는 증거로 채택되었고, 재판부는 1심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가해자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 판결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사설 삭제 업체에 대한 금전적 부담과 가해자의 합의 종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센터의 상담, 삭제, 수사·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에 이르는 종합적 지원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해 가고 있다. 특히 A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수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는 가해자 실형 선고로 이어져 많은 용기를 얻게 되었다.

2 지원센터-경찰청 핫라인

〈공조로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B씨는 지인을 통해 남자친구와 촬영했던 사생활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일상 사진이 함께 게시되고 있어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B씨는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하고, 피해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막기 위해 본 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하였다.

센터에서는 유포 피해로 인해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B씨에게 삭제지원과 더불어 의료지원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센터는 B씨가 중복진술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거주지 내 지역 상담소로 피해 경위서를 발송하고, 디지털 성폭력 상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상담사들로 구성된 상담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연계하였다.

삭제지원은 영상과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된 사례였기 때문에 동영상 유포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B씨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신상정보가 남아 있는 게시글도 모두 삭제지원하였다.

센터는 유포현황을 점검하던 중, 피해영상물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을 발견하였는데, 해당 사이트는 불법촬영·유포 범죄로 적발되었을 때 처벌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었고, 운영자는 다운로드하면 안 되는 영상의 목록과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고 있었다. 사이트 운영자는 센터의 삭제요청에 불응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였다. 이에 센터는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기 위해 '지원센터-경찰청 핫라인'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고, 사이트 내 불법 게시글과 관련된 채증 자료와 B씨를 포함한 다 수의 피해자들이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경찰서는 센터가 제공한 채증 자료 및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청에 송치되어 재판 기일을 앞두고 있다.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B씨는 신속한 삭제지원과 의료지원을 동시에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 또한, 신상정보 노출 게시물 삭제, 나아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불법정보 공유 사이트 폐쇄까지 이뤄낸 B씨는 센터의 지원을 통해 향후 수사 진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3 적극적인 대처로 신속한 유포 확산 방지

C씨는 전 연인과 동의하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어, 자신의 영상물도 혹시 유포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있었다. 그러던 중 메신저의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자신의 영상물을 전송받게 되었다. C씨는 영상물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물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성 답변만 들었고, 전 연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사를 보며 더욱 불안은 심해져 결국 C씨는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영상물을 찾는 일을 반복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이에 C씨는 센터에 유포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센터에서는 URL이나 키워드 등 실제 유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도, 원본 영상물이 확보된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영상물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위해 C씨의 피해영상물을 살펴보던 중 특정 성인사이트의 로고가 워터마크로 찍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이미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성인 사이트였고,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C씨의 피해영상물과 유포 키워드를 확보하여 다른 사이트에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센터는 발견한 모든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 하였고, 추후 신고를 위해서 알 수 없는 상대가 피해영상물을 전송한 기록과 대화 내역 일체를 저장해두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을 자문해 주었다.

C씨는 유포된 정황은 있지만, 정확히 어떤 사이트에 유포되었는지 정보를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센터의 지원을 통해 피해영상물의 유포 현황과 유포 키워드를 모두 확인하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피해자 본인이 성인사이트를 모니터링하지 않게 되자 다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다.

4 일상 사진을 도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D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남성은 D씨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연락했다면서, 조건만남을 요구하였다. D씨가 어떤 게시물을 보았냐고 물어보자 URL 하나를 보내왔고, 해당 게시물에는 D씨의 일상 사진과 D씨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여성의 영상이 합성되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D씨의 신상정보와 함께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이 작성되어 있었다. D씨는 합성된 사진이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라는 것을 알았고, 지인의 소행임을 의심하게 되었다.

피해영상물은 주로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었다. 조건만남을 구하는 사칭 계정, 성매매 사이트를 홍보하는 계정 등에 신상정보와 함께 게시되어 있었다. 특정인의 일상 사진을 보내주면 금전을 받고 음란물에 합성해주는 계정에서도 피해자의 사진이 도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센터에서는 유포 속도가 빠른 SNS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진행하였다.

센터에서는 수사를 위해 피해 사실을 해명할 수 있는 채증 자료를 D씨에게 전달하였고, 센터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D씨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D씨는 스스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건을 혼자 해결해 나가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낯선 사람들의 전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센터와의 상담 후 혼자서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 D씨는 사건에서 벗어나 조금씩 피해를 회복해 가고 있다.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 행 인 : 박봉정숙

발 행 일 : 2019년 12월 30일

발 행 처 :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연 락 처 : Tel. 02-735-1050
E-mail. stopds@stop.or.kr
Homepage. www.stop.or.kr

등록번호 : 여성인권-결과보고 2019-3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